

X. 아산·온양의 전설

1. 염 치 읍

[1] 귀 신 못

현충교의 주변 그 냇가를 거슬러 동쪽으로 올라가면 그다지 깊지는 않지만 커다란 웅덩이가 있다. 지금은 그 냇가의 물이 거의 말라가고 있지만 요 몇 년전만 해도 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곳에서 가끔 가다 여름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빠져 죽는다고 한다. 빠져 죽는 어린이의 수가 늘어날수록 동네의 나이 많으신 어른들께서는 물속에 귀신이 있어서 어린 아이를 잡아간다고 하셨다.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너무 터무니가 없어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부터 거의 먼 옛날은 아니지만 현충교를 막 지으려던 무렵이었다. 때마침 더운 여름이라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장마가 시작되자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지키기 위해 그 근처에 움막을 짓고 돌아가며 지키기로 하였다. 그날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도 사납게 울부짖었다. 인부들 중 한사람이 날이 어두어지자 움막속에 들어가 문을 꼭꼭 닫고 불을 켜다. 드디어 깊은 밤이 시작되었다. 꽤중시계가 새벽 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꼭 닫았던 문이 활짝 열렸다. 그 문소리에 그만 잠을 깬다. 그 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기절을 하고 말았다. 그 이튿날이 되었다. 기절한 그가 깨어나 그 이야기를 하니 모두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 교대하여 지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일은 계속되었다. 인부들 중에는 기절하는자 죽는자도 더러 있었다. 생각다 못한 인부들은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지키기도 하였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2중 3중으로 닫았던 문을 힘차게 때렸다. 5명정도가 한 이불속에서 약간은 겁먹은 눈으로 새벽 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새벽 2시, 문은 한결같이 열렸다. 그녀는 나타난 문뒤로 똑바로 서 있었다. 5명의 사나이는 한 이불을 가지고 서로 끌어당겼다. 그중엔 기절한 자도 있었다. 한명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누구요"

"네. 전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억울하게 죽어 이렇게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 그럼 진작 그러지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시오?"

"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보는 사람이 저보고 놀라니 저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 알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사유나 들어봅시다."

" 네. 전 조금 오래전에 이 마을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늙으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은 저를 너무도 미워하여 구박까지 했어요. 어느날 남편은 이웃마을에 갔습니다. 요 며칠전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저의 집에 끼고 있는 냇가에는 물이 잔뜩 불어 났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는데 시어머님은 저보고 방죽 구경가자고 했습니다. 전 이기회에 어머니와 친숙해 질려고 따라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전 한없이 방죽을 쳐다보며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했다는 점에서 뉘워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의 미는 힘에 의해 전 그만 방죽속으로 빨려들고 말았습니다. 전 비록 죽었지만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죽은 뒤 이틀도 못되어 남편은 재혼을 했습니다. 전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한이 맺혔습니다.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음, 정말 지독한 늙은이야! 알았소. 그대의 한을 풀어주리라."

" 그럼 꼭 부탁드립니다."

여자가 물러나자 새벽의 동이 크고 비가 맑게 가시었다. 그 이튿날 그는 그 동네에서 그 노인을 찾아냈다. 그 노인과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의해 몰매를 맞고 그 동네를 쫓겨나고 말았다. 지금은 그 냇가의 물이 말라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 냇가를 보면 좀 서늘한 느낌이 든다.

[2] 냉 천

염치면산양리 물바가지골에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난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부부는 어찌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마을 사람 모두가 부러워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

다. 그런데 사람은 일평생 행복에서만 살 수 없는 것이었나 보다. 그렇게 인자하고 자상하고 정이 많던 남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졸다는 약은 안 써 본 것이 없고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 보았지만 병명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부인은 천인단애의 지경에 이른 듯 애탁하여 슬퍼하다가 달리 방법이 없음을 깨달아 뒤뜰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정성을 다하여 빌기를 수십일, 그러나 남편의 병에는 차도가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색시에게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시주를 위하여 대문을 두드린 스님이 그심에 차 있는 부인의 얼굴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어왔다. 그 부인은 남편의 병 이야기를 하고 처음 보는 스님일지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유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그 스님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나 깊은 산속에 작은 못이 있는데 그 물을 떠다 먹이고 목욕을 하면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못에는 천년이 된 거머리가 살고 있어서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다 했다. 다만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란 부정한 일이 없는 순결한 여인네의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서 향을 피우면 이 거머리가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그 부인은 머리 카락을 뽑는다는 사실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이 남편을 잃는 슬픔보다 작았기 때문에 굳은 결심으로 머리카락을 뽑기 시작했다. 입밖으로 새어 나오는 비명 어찌할 수가 없었고 그 덕망 높아 보이는 스님은 방문 밖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침내 다 뽑아진 머리카락을 소중히 싸서 스님과 함께 거머리가 산다는 못으로 향했다. 보름날에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머리는 달이 흰하게 떠오르자 드디어 그 괴이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을 보고 다가오는 거머리를 향해 부인은 보자기에 싸온 머리카락을 꺼내어 불을 붙여 냄새를 피웠다. 그러자 냄새에 취한 듯 괴로워서 꿈틀거리는 거머리를 보고 있던 부인은 이때다 싶어 가지고온 항아리에 그 물을 퍼 담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남편에게 그 물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니 병은 씻은 듯 사라지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부인은 자신의 정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남편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자상한 남편은 자기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서슴치 않았던 아내를 전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 뒤로 그 못에는 차고 시원한 물이 솟아났는데 정성을 드리고 그 물을 먹으면 병에 특효가 있다하여 "냉천"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만일 부정한 자가 그 물을 마시면 거머리가 나와서 악효가 없어진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렇듯 지아비를 위해 서라면 자신의 무엇이라도 아깝지 않다는 헌신적인 애정만큼 헌신적인 보호는 오늘날 우리에게 부덕(婦德)이란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한 남자의 아내라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모녀바위

아산군 염치면 보문선원 앞에 장자못이 있다. 이곳에는 낙시꾼이 더러 오느는데 보문 선원에 계시는 스님께서 낙시질을 못하게 하시지만 여전히 낙시꾼들은 찾아온다. 장자못에 연꽃을 심는 등 여러 일을 하시는 스님의 고생과는 아랑곳없이

그런데 이 장자못에는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어렸을 때 할머니의 무릎에서 들었던 이야기다. 장자라는 부자 호칭을 가진 사람과 그의 아내 며느리 손녀가 이곳에 살았다 한다. 이 장자라는 사람은 대단히 구두쇠라 한다. 그러나 며느리는 참으로 착했다 한다. 하루는 스님의 시주를 왔는데 장자가 거름을 퍼 주었으나 며느리가 쌀을 시주하며 시아버지의 잘못을 빌었다. 스님은 며느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년 모월 모일에 딸만 데리고 저 고개를 넘어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여도 뒤돌아 보지 말라 하셨다. 그날 며느리가 딸을 데리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비명소리, 천둥소리가 들렸으나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는 스님의 말을 따라 계속 걸어가다가 그만 시어머니의 "아가야, 아가야"하는 애처로운 소리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리하여 며느리와 딸은 바위가 되어 지금은 모녀 바위라 불려지고 있다. 그 집이 있던 장소는 못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자못이라고 한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정신이 있는 전설 같다. 착한 며느리가 바위가 된 것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시어머니의 애처로운 소리를 외면한 것보다는 훨씬 인정이 있는 것 같다.

[4] 뱀 발

지금은 현충사가 있는 마을이 염치면 백암리인데 뱀발은 지형이 뱀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 다음과 같은 전설도 있다. 어느날 한 부인이 아침상을 들어가는데 마당에 굵고 긴 아주 오래된 뱀 한 마리가 몸을 비비꼬고 머리를 뺏뺏이 들어 그 집을 응시

하고 있었다. 아침상을 들어가면서 부인은 달려들 기세를 하고 있는뱀을 보고 너무 놀라 밥상을 었었다. 그 소리에 방에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와 이 광경을 보았다. 남편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하여 뱀을 죽일 기세로 몽둥이를 찾았다. 마침 헛간에 있는 삼을 보고 잘됐다 생각하여 그 삼으로 뱀의 머리를 잘라 죽였다. 빨간 피를 흘리고 죽은 뱀이 너무 징그럽고 크기 때문에 집근처에 버릴 수가 없어 뒷산에 끌고가 산중턱에 묻었다. 그런데 얼마후 같은 마을 여기저기에 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길가 여기저기에 나타나더니 며칠이 지난 다음에는 집 뜰에까지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뱀들이 모여들까 걱정이 되고 무서워 공포에 빠졌다. 또 이상한 것은 뱀을 죽인 집에서의 일이다. 뱀을 죽일 때 사용한 삼이 달는 곳의 풀이나 농작물들이 말라 죽었다. 그리고 그 많은 뱀들이 스쳐 지나간 곳의 풀들은 모두 죽고 뱀풀만이 자라게 되었다. 어디를 가나 뱀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농작물이 모두 죽어 흉년이 들어 고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열어 뱀이 많이 나오는 원인을 추적하였다. 그 큰 뱀을 묻은 산에서부터 많은 뱀들이 나오느 것을 알고 그 속에 묻힌 뱀이 한을 품어 그런 것같다하여 뱀을 위해 젖르르지내 주었다. 그 뒤로부터 차츰 차츰 뱀의 숫자가 줄고 뱀풀도 없어졌다. 그래서 그 뒤로 뱀과 뱀풀이 많았던 이곳을 일컬어 뱀밭이라고 하였다. 오늘의 백암(白岩)리가 백암리의 표기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언뜻언뜻 생각이 나면 내 발앞에 뱀이 나타날 것 같아 아찔하곤 한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은 옛날이자 지금이나 생각해야 할 일인 것 같다.

[5] 범 바 위

염치면 서원리 두무실 서쪽에 있는 바위에 얹힌 이야기다. 옛날 옛날 어느 울창하고 깊숙한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어찌나 무섭고 포악한지 지나가는 길손이 짐승은 해치기를 예사로 삼아 주위의 모든 짐승들은 해가지면 즉시 돌아다니기를 멈추고 굴속에서 숨을 죽이고 생활했고 "으르렁"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릴적 마다 가슴을 조이며 벌벌 떨어야만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낮에도 산속에 들어가기를 꺼렸고 그들은 함부로 나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날도 호랑이는 마치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으르렁 거리며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네 이놈!" 하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노기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놀란 호랑이가 뒤를 돌아보니 산신령님이 호랑이를 무섭게 쳐다보며 "네 이놈! 살생을 그리도 많이 하고 살아 남기를 바라느냐! 당장 천벌을 받으려다"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호랑이는 벌벌떨며 "잘못했습니다. 신령님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산신령님은 이런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잠시 생각한 후 "그럼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다시한번 인간을 해쳤다가는 용서하지 않겠다"하는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호랑이는 "휴우"안도의 숨을 쉬었으나 그 앞으로 어느 한 나그네가 강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한 호랑이는 놀칠세라 그의 길을 막으며 입을 벌려 그를 삼켜 버렸다. 이때 산신령님의호령이다. " 네 이놈! 두 번 다시 않겠다더니 또 살생을 했던 말이나!" 순간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바위로 변해 버렸다. 모든 인간들이나 짐승들은 모두 환호성을 올렸다. 하지만 그 호랑이가 낳은 새끼들만은 그 범바위를 떠나지 않고 지켰으며 후손들도 계속 살았다고 한다. 비록 모든 짐승들로부터 욕설을 받은 호악한 호랑이었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조상 호랑이었기에 바위나마 극진히 지키고 보살폈으리라. 우리 인간들의 생활속에서 요사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행하는 관습이 찾아 사라져 가는 이 상황에서 한번 범 새끼의 행동을 깊이 생각해 봄직도 하다.

[6] 상 투 봉

옛날에 염치면 강청리라는 마을에 죽대없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선비면서도 글은 안 읽고 매일 술만 먹고 하는 짓이 남의 집닭이나 잡아가지고 돌아다니며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뽑고 그야말로 선비로서는 못할 짓을 하고 돌아 다녔다. 이러다보니 과거 시험만 보면 낙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마을은 정말 이 못된 선비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다 못해 그를 동네에서 쫓아 버리기로 결의했다. 쫓아내는 방법은 그와 상대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와 상대를 안하면 그가 저절로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는 더욱 나쁜 짓만 하고 다녔다. 이번에는 닭만 잡아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남의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몽둥이로 잡아 죽이

는 등 갈수록 문제였다. 그는 장날이면 항상 장에 갔다. 항상 장에만 가면 하는 것처럼 그는 지나가는 사람과 실갱이를 하다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만끽해 가지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양반의 걸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길 전체를 왔다갔다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같은 걸음이었다. 그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는 그야말로 10리 길을 가야 했다. 그의 걸음걸이로 봐서는 내일에도 집에 못갈 것 같았다. 그는 강을 건널 때 강에 빠질 듯이 비틀거렸다. 그러나 그는 용케도 강을 건넜다. 그의 눈앞에는 산이 가로 막고 있었다. 그 산에는 큰 고개가 있다. 그는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에서는 그는 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기분 나쁠 정도로 들려왔다. 그러나 이 선비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은 듯이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이 들리는 울음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다. 그가 산중턱에 올랐을 때 숨이 가쁜지 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그의 앞에서 그를 노려보고서 있었다. 그는 정신이 번쩍났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랑이를 바라봤다. 호랑이는 두눈을 번쩍이며 그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가오던 호랑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천둥벽력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큰바위만 우뚝 서 있었다. 선비가 바위로 변한 것이다. 호랑이는 산신령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바위는 상투처럼 흔들면 흔들린다고 한다. 중심없는 선비의 마음처럼. 사람이면 모름지기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참되게 살아야 하지...

[7] 서 원 제

때는 조선중기, 한창 당파싸움으로 인해 말이 아닐 지경에 이르렀다. 먹고하는 짓들이 매일 싸움이니 나라의 운명은 경각에 달렸다. 이때 노론의 한 사람이었던 함양 박씨인 지상은 그러한 꼴들이 모두 보기가 싫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막상 그런 마음을 먹자 주위의 반대가 극심하였다. 더 두고 보자는 사람, 우리가 소론 측과 싸워야 한다는 사람등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급기야는 그들을 설득시켜 고향인 서원리에 내려오게 되었다. 고향에 내려오자 때마침 이들과 같은 뜻으로 고향에 내려온 함양 홍씨인 편서의 일가(一家)가 자리잡고 있었다. 나라의 사정은 말이 아니라 진정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함을 절실히 느꼈던 지상 아들과 마음이 통했던 지라 무척 가깝게 지냈다. 어떤 날 나라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인재양성을 위한 서원 건립이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때일수록 참된 인물이 필요한 것이 당연지사, 의논 끝에 세운 서원을 "인산서원"이라 칭하였다. 인산서원! 근처의 참신한 인재들이 모여 들었다. 언젠가는 이루어진 그 목표를 향해 끈임없이 나아갔다. 그후 널리 인재를 등용했던 정조가 이곳에는 참신한 인재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불러 들었다. 나라일을 무척이나 걱정했던 이들 그러기에 국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들 영화에 시기 질투하던 몇몇 무리들의 가사스런 행동으로 정계에서 밀려난 이들이 찾은 곳은 고향 서원지, 죄를 지은 일도 없었으나 그 억울함은 어디에다 하소연하라! 다시금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그곳을 "서원제"라 불렀다. 그리고 서원제가 있던 마을을 서원리라 한다. 규모가 무척이나 작았던 그곳은 6·25때 파손 그 자리만 남아 있었으며 그 후손이 보존하고 있다. 흔해 빠진 이야기속에 당파싸움이라는 것이 꼭 끼여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 역사의 치부인 당파싸움, 그런때는 한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8] 쌍 바 위

우리집의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다. 이 저수지가 있음으로써 염치면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다. 저수지의 마주 보이는 곳에는 바위들이 많다. 그 바위 중에서 슬픈 사연을 지니고 있는 바위가 있으니 이것이 쌍바위이다. 할머니께서는 가끔 쌍바위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 옛날에 두 사람의 남녀가 뼈에 사무치도록 사랑을 했단다. 그들은 시간 나는대로 만나고 또 사랑얘기를 나누곤 했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었기 때문에 앞날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둘만의 약속으로는 결혼이 성취되지 않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면서도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둘은 생각한 끝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죽기를 작정하고 찾아온 곳이 바로 우리집 앞의 저수지였다. 바위위에서 둘은 손을 꼭 잡은 채 앉아서 아무말도 안하

고 있었다. 벌써 해는 저서 날이 어두워 오고 있었다. 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둘은 꼭 껴안은 채로 물소경 뛰어 들었다. 다음날 죽은 두 사람을 꺼냈을 때까지도 껴안은 채였다고 한다.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 고귀한 두 생명을 잃은 것은 애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 바위는 한쌍의 남녀가 앉아 있다가 뛰어내린 바위라하여 쌍바위라고 이르고 있다.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세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그 세대가 우리들의 현 세대에 비하여 본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지도 모른다.

[9] 옥종교의 하안새

우리 동네에 옛날 옥종교라는 곳이 있다.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사람들이 우리 조선인을 시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그곳 웅덩이에서 동네 꼬마들하고 또 다른 동네 꼬마들하고 수영을 한다. 그러면 꼭 아이들이 1년에 2~3명 정도 빠져 죽는다. 2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집 밑에 사는 아이가 수영을 하다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 꼬마아이는 친구와 같이 수영을 했다고 한다. 깊은 곳은 수영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 못한다. 한데 어떻게 해서 빠져 죽었느냐고 그 아이 친구한테 물었더니 죽은 아이 친구가 말하기를 같이 수영을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하안새가 물위에 있다고 하면서 잡으러 간다고 하며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한다. 죽은 아이친구도 그도 하안새가 물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하안새가 귀신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어느때 낚시 태어난 아기가 물에 붙어 둥둥 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비오는 날 자기 아이와 같이 여자가 빠져 죽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한이 되어 해마다 어린 아이들을 붙들고 간다고 한다. 정말 물귀신이 있을까?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을까? 의문투성이다.

[10] 요 왕 샘

지금 옆치면 대동일와 방현리에 있는 요왕샘에 얽힌 이야기다.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고 항상 정다운 마을 행복한 마을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이 지나가면서 고자샘 동쪽에 있는 샘물을 떠다 먹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병이 모두 다 나았다. 해마다 동네에서는 그 물을 떠다 먹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 그런데 또 이 마을에 불행이 닥쳐왔다. 그 샘의 물이 모두 말라 버린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제(祭)도 올리고 굿도 해보았지만 도무지 헛일이 되어 버렸다. 물은 다시는 솟아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루는 또 스님이 지나가면서 중얼거렸다. 샘에는 백년 묵은 이무기가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니 처녀를 바치면 물이 다시 솟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같았다. 도대체 누구를 바쳐야만한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울래울래 땅르 타동네로 피신시키기에 이르렀다. 서로들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싫어도 또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네의 한 처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홀어머니를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동네를 위해서 자진해서 제물로 가겠다고 했다. 자정이 되어서 처녀를 샘 앞에다 놓고 제를 올려싸.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번개를 치더니 하늘로 한 마리의 용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 이무기는 마음 착한 처녀의 기운이 달아야만 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씨 고운 처녀를 다시 홀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동네 사람들의 보호 밑에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그때부터 이곳을 용와샘이라 하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용왕샘이 요왕샘으로 바뀌었다. 지금도 이 샘물을 마시면 장수한다고 한다. 그리고 처녀의 착한 마음씨인 양 이 샘물은 그칠줄 모르고 계속 흐르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들 마음속으로까지 흐르리라 본다. 이 처녀의 희생정신은 결국 자신을 살리고 동네를 살리고 용을 살린 샘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일인가?

[11] 은 행 나 무

아산군 염치면 방현리 1구에는 큰 은행나무가 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한다. 지금으로부터 1000여년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집에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부부는 너무나도 금실이 좋아 귀신까지도 부러워 할 만큼 금실이 좋았다고 한다. 하루는 남편이 나물르 하러 산에 오랄갔는데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 부인은 텅빈 집에 혼자 잇노라니 허전함과 공포로 가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었다. 이젠 자정될 시각이 몇분 남지 않았다. 잠시 후 자정이 되자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그 목소리는 다름아닌 자기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부인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여, 나야 나! 빨리 문 좀 열어요" 그러나 부인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부인은 더욱더 무서움으로 떨며 당신이 진정 내 남편이신가요? 그래요 빨리 문 좀 열어요. 그럼, 내 남편의 손에 점이 있으니까 우선 손 좀 내밀어 보세요 남편은 한참 머뭇머뭇하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여니 잠시후 하얀 백지장 같은 내밀었다. 나의 남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얀 손이 못대요. 그이는 약간 누르스름 하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한참 후에다시 나타나 이번은 아마 똑같은 것이라 자부하며 손을 내밀었다. 부인이 자세히 보니 그 손은 흙과 밀가루를 범벅하여 바른 것이었다. 부인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며 좋은 방안을 생각해 냈다. 다행히도 그는 가슴에 은장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괴한이 나타나더라도 싸울 수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내 남편손하고 똑같은까 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손을 잡고는 은자도로 마구 찼었다. 그 부인은 다마 정절과 자기 몸을 기키기 위해 그리고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악" 소리와 함께 괴물을 점점 사라져 가고 부인은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에는 뺨뺨한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다. 그 괴물은 다름 아닌 늑대가 남편으로 가장해서 부인을 해치려 온 괴이한 행위였고 남편은 나무를 지고내려오다 구덩에 빠져 동네사람들의 발견으로 간신히 나올 수 있었다 한다. 그후 부인의 가당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부인을 끝내 못잊어하며 부인을 화장하여 은행나무를 심고 뼈는 가루를 내어 그 둘레에다 고루 뿌렸다고 한다. 비오고 눈내리는 날이면 그 은행나무는 부인의 소리를 내며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를 하며 슬피운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지금은 할아버지들의 안식처가 되고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장소가 되어 쓰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부인의 영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12] 장 자 못

아산군 염치읍 송곡리 2구에 장자못이 있다. 옛날 돈 많고 장자인 욕심장이 노인이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욕심장이 이 노인이 빨리 죽기를 모두 바랬지만 이 노인은 더욱 더 재산을 모았다. 어느날 늙은 스님이 시주를 해 달라고 왔는데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하고 시아버지에게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몰래 쌀을 시주하던 중 욕심장이요, 심술이 많은 노인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 노인은 스님에게; 드렸던 쌀을 빼앗고 그동안 시주해 온 시자 자루를 모두 빼앗고 시주자루에다는 외양간에서 가지고 온 쇠똥을 가득 넣어서 대문밖으로 내쫓았다.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에 스님에게 사과하려고 스님한테 갔다. 이 스님은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의 행동은 나쁘지만 며느리는 착한 것 같군요. 지금 곧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집에서 멀리가야 재산을 피할 수 있어요"하고 가버리셨다. 스님이 말한대로 며느리는 그대로 집을 나와 가던중 와르르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 본즉 그 으리으리한 집과 넓고 기름진 문전옥답이 큰 연못으로 변하여 지금의 장자못이 되었다고 전하며 며느리는 뒤를 돌아다 본 순간 바위로 변하였다고 전한다. 지금 세상에서는동냥을 못 줄 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아야 겠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만 같다.

[13] 정 자 나 무

아산군 염치면 방현리 2구 (방수물)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장 고장마다 한 두가지의 전설

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이 동네로 이사온 지가 몇해 안된다.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아니 이웃의 몇집밖에는 이 동네에 누가 살고 또 어디에 사는지도 제대로 모른다. 하지만 내가 이 동네로 이사오던날 이웃집 친구가 이야기 해 준 이 동네의 전설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는 처음 들어노는 기에 굉장히 오래된 정자나무 네 그루가 있다. 그중 맨마지막에 있는 정자나무의 전설이다. 옛날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 처녀가 이 나무에 그네를 매고 그네를 타다가 줄이 끊어져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후 동네의 한 아주머니가 이웃동네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정자나무밑에 이르자 갑자기 줄이 내려오며 머리에 인 광주리가 위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그곳을 가보니 광주리는 그 나무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해서 그 나무는 그 처녀의 혼이 들어 있다고들 말한다. 또 비오는 밤이 되면 그 나무에서 구렁이가 내려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다. 그 나무밑을 경르때는 언제나 섬뜩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 꽃다운 나이에 죽은 처녀의 혼이 서려있는 곳이라서일까? 만사는 불여튼튼이라 조심해야지

[14] 정 자 천

염치면 백암리 현충사 뒷산에 정자천이라는 우물이 있었다. 옛날 이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부지런하고 서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부부였다. 벌써 결혼한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자손이 없었다. 남편은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 했다. 남편이 이웃집 아이들을 안아 주고 데리고 놀고 할 때마다 아내의 마음 한 구석에는 근심이 서렸다. 아내는 결심을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대로 정성을 드리면 이루어지겠지 부인은 다음날부터 아직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뒷산의 샘에서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그칠줄 모르는 부인의 정성에 용왕님도 감복하셨는지 어느날 부인이 또 정성을 들이고 있을 때 사방에 이상한 기운이 서리더니 지팡이를 든 어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지 않은가 부인은 놀라서 "뉘시온지요"하고 물으니 그 노인은 나는 이 샘의 용와응로 너의 정성이 너무도 가상하여 내 그 비방을 알려주마 하시며 이 샘의 물을 매일 공복에 조금씩 마셔라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옥동자를 가질 것이다. 이 말과 함께 그 백발 노인은 온데간데없이 스르르 사라지고 부인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했다. 너무도 기뻐서 허공에다 감사하다는 배를 울리고 급히 산을 내려왔다. 남편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촉급해서 걸음이 마음을 따르지 못했다. 부인은 그 동안의 일을 남편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일을 말했다. 남편은 너무도 기뻐다. 그렇게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저런 아이가 있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 남편은 더욱 부인을 소중히 여기었고 부인 또한 정성들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기를 20여일 부인은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후에도 아이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에 정서를 드리면 아이(자식)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샘은 정자천(定子泉)이라 불리워 졌다. 이 샘의 옛일을 회상해 본다. 어느 부인의 지성을 생각해 본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되새겨 본다.

[15] 흥 도 령 못

염치면 송곡리 배덕거리 서쪽에 있는 못으로 사연이 이렇다. 옛날 어떤 곳에 나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부부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 늘 쓸쓸해 하고 있었다. 나이가 많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아이가 하나 생겼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어느날 부인은 남편에게 "구렁이라도 좋으니 아이를 하나 낳아 봤으면 좋겠어요"하고 말했다. 그런데 부인의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그후 부인은 정말 아이를 갖게 되고 달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낳고 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었다. 부인은 남보기 부끄러워서 감추었지만 구렁이도 자식이기에 "흥도령"이라 부르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았다. 그렇게 숲속의 생활이 여러 해가 지났다. 어느날 구렁이가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저도 장가를 들어야 할테니 신부감을 골라 주세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도 참 답답하구나, 네 처지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뭐가 어때서요" 어쨌든요 아랫마을 황부잣집 셋째딸에게 장가를 가야겠으니 의향이라도 좀 물어봐 주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흥도령을 타일렀지만 흥도령은 막무가내였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부잣집 대문앞에 이르렀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 망성리고 있는데 마침 이 집주인인 황부자가 홍도령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황부자가 서 있는 가닭을 물어보기에 홍도령 어머니는 망설이다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음...음..."하고 잠자코 듣고만 있더니 "그럼 한번 물어나 보십시오" 부잣집 주인은 첫째딸을 구령이에게 시집을 가겠느냐고 물었더니 펄쩍 뛰면서 싫다고 했다. 둘째딸도 첫째딸과 같은 대답이었다. 그런데 셋째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더니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찌 제가 좋다 나쁘다 말하겠습니까? 저는 부모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라하여 부잣집 셋째딸은 구령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식날 두 언니를 비롯하여 온동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모두 셋째딸을 비웃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밤이 되었다. 구령이 신랑 홍도령은 신부화 함께 신방에 앉아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밤이 깊어 자정이 되자 구령이 신랑은 흥한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신부는 깜짝 놀랐다. 홍도령(구령이) 허물을 벗은 신랑의 모습은 잘 생기고 능률한 남자였다. 이 때 두언니가 옛날 풍습대로 문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보고 역시 놀랐다. "이럴줄 랐으면 내가 시집 갈 걸 그랬지" 둘은 무척 억울해 하면서 방안을 들여다 보았다. 마침 신랑은 구령이의 허물을 신부에게 말기면서 "이건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여도 안되고 불에 태워서도 안되오. 만일 약속을 어길 때에는 당신과 나는 다시 만날수 없을 것이오" 하고 단단히 당부한 다음 신랑은 날이 밝자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두 언니들은 동생의 웃고름에 매달려 있는 조그마한 주머니를 보고 자꾸만 보여 달라고 했다. 그럴지만 그 주머니에는 신랑의 허물이 들어 있었으므로 신부는 처음에 안된다고 거절했지만 나중에 언니들이 화를 내자 할 수 없이 보여 주었다. 이 때 두 언니들은 재빨리 그 주머니에서 빼낸 허물을 받아들자 이내 화로불에 넣어버렸다. 신부는 한없이 슬피 울었다. 울다가 지친 신부는 작기가 할 일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그 마을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었다. 그후 하루, 이틀.... 한달, 두달이 지나긴 여행을 마친 신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홍도령이 집에 와보니 신부는 없고 두 언니들이 몸치장을 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이유를 묻자 두 언니들은 신부가 허물을 불에 태우고는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홍도령은 탄식하며 슬허가다가 자기도 그 연못에 몸을 던졌다. 이 이야기는 영치면 송곡리에 있는 배덕거리에 얹힌 연못의 전설이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이다. 전설이라서 그런지 사실성이 없지만 흥미는 꽤 있었다. 신부를 따라 죽음을 택한 홍도령이 조금씩 불쌍해졌다. .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와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 대개 나중에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좋은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내용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얻은 교훈이 있다. 홍도령이 언니들과 살지 않고 자기 부인을 따라 같이 목숨을 끊었다는 것.